

# 강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 '제로'

### 10년 신뢰 베트남 풍합현과 협약을 4월 공공형 근로자 20명 입국 주거공간 제공·임금 보장 등 효과

전남에서 계절근로제나 고용 허가제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의 증도 이탈이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광주일보 10월 10일자 3면 보도) 강진군이 올해 추진한 공공형 베트남 계절근로자 시책이 순항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강진군은 공공형 20명, 농가형 결혼이민자 가족 7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이탈률이 0%를 기록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런 결과는 강진군과 국제 우호도시인 베트남 풍합현과의 지난 10년간에 걸친 오랜 기간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교류·협력이 가장 큰 바탕이었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난 2023년부터 체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농번기 동안 일손이 부족한 강진군의 농업 현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계절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강진군은 지난해 3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1월에는 베트남 풍합현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올해 4월 20명의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했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국내 안착을 위해 입



강진원(오른쪽 두번째) 강진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작업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향후 계절근로 프로그램 확대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강진군 제공>

출국 교통비와 통역비를 지원하고 2동의 주거 공간을 제공했다. 이들은 5개월간의 정식 인력계약을 맺었고 대다수는 3개월의 추가 작업을 확정 짓고 오는 11월 22일까지 농작업에 임한다.

고용주인 도암농협 윤재선 조합장은 "전담 직원을 배치해 숙식 편의 제공과 반일 근무, 초과근무 수당 지급 등 외국인인 임금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근로자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베트남 현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이러한 성과를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 베트남 풍합현 양해각서(MOU) 체결 결과 재입국 추천 제도, 성실 근로자에 인센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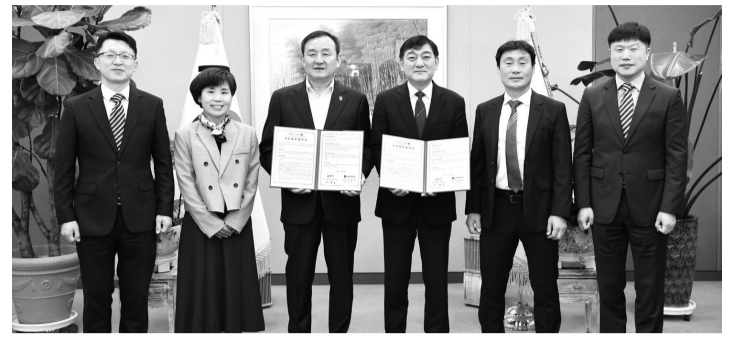
지급 등을 통해 내년도 계절근로자 고용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히고 있다.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수요조사를 오는 25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받을 예정이며 배정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농업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이탈률 0%라는 성과는 강진군의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강진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 담양군, 남부대와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협약

담양군과 남부대학교가 15일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및 상생발전을 위해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협약식에는 조준범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남부대학교는 소속 교직원



를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담양군에서는 홍보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진행했다.

담양군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어르신에 대한 병행 동행 서비스, 퇴원환자 돌봄서비스, 아동에 대한 특화프로그램과 간식비 지원, 상인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주민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조준범 남부대학교 총장은 "담양군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사업

이어서 공감의 됐다"며 "지역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며, 이번 협력이 상생발전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담양을 응원해 주기 위해 협약에 함께해주신 남부대학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남부대와 상생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 화순군, 수입밀 대체용

### 가루쌀 첫 수확... 40t 생산

화순군이 지난 14일 한천면 조규명씨 농가에서 수입밀 대체용으로 재배한 가루쌀(바로비2)을 첫 수확했다고 밝혔다.

화순군에 따르면 올해 지역 17개 농가 5.8ha에서 가루쌀을 재배해 총생산량은 40t 규모가 될 전망이다.

수확된 가루쌀은 농가 소득 안정과 밀 대체 가공 제품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량 공공비축미곡으로 매입될 계획이다. 가루쌀은 일반 쌀과 달리 물에 불리지 않고 재분해 빵, 라면, 과자 등 다양한 가공 식품에 사용할 수 있다.

일반 쌀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수입밀을 대체해 식량자급률 향상을 높일 수 있는 일석이조 전략작물이다.



한천면 조규명씨 농가에서 수입밀 대체용으로 재배한 가루쌀(바로비2)을 수확했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첫 재배를 계기로 생육 단계별 현장 컨설팅과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체계적인 기술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류정수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등숙기 벼

멸구 피해와 집중호우에 따른 수발아 피해 등으로 가루쌀 재배가 쉽지 않은 해였다"며 "점진적으로 가루쌀 재배를 확대해 밀 수요 일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 함평 문화체육센터에 7레인 실내수영장 준공

함평군이 최근 실내수영장 준공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수영장은 함평 문화체육센터 내에 연면적 2624㎡ 규모로, 25m 길이의 7레인 및 유아풀을 갖추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 증

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함평군은 수영장을 시작으로 문화체육센터에 2028년까지 총 424억원을 투입해 실내체육관, 축구장, 테니스장 등을 추가로 조성, 센터를 종합 스포츠타운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이상의 함평군은 "그동안 수영 강습을 위해 군을 벗어나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게 되어 매우 감개 무량하다"며 "함평 실내수영장이 지역의 부족한 스포츠 인프라 보강과 함께, 주민의 중요한 공공체육 시설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윤병태(가운데) 나주시장 등이 '2024 나주영산강축제'가 폐막식에서 축제 성공 개최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 나주영산강축제 관광객 36만명 찾아 대성황

### 다양한 즐길거리 연일 인산인해 로컬문화자산 축제 콘텐츠 호평

나주 영산강정원 일원서 펼쳐진 '2024 나주영산강축제'가 최근 폐막 공연을 끝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나주시에 따르면 2024 나주영산강축제는 개막식 11만여명을 포함해 36만여명에 달하는 역대 최대 관광객 수를 기록하며 나주 축제 역사를 새롭게 썼다.

시민과 전국 관광객에게 첫선을 보인 영산강정원은 '방치돼왔던 저류지의 변신'으로 화려한 데뷔전을 치르며 2029년 국가정원 지정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축제장엔 2천년 나주의 역사와 전통, 현대 문화를 아우르는 무대 공연, 풍성한 먹거리와 농산물,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즐길거리로 연일 인산인해를 이뤘다.

나주만의 로컬문화자산인 천연염색패션쇼, 나주삼색유산놀이, 동강봉투틀노래, 나주풍류 열전은 눈과 귀를 사로잡는 신명나는 무대로 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대중적인 축제 콘텐츠로서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이다.

통합행사인 나주농업페스타·전남콘텐츠포어·반려동물축제·요리왕선발대회·전국나주마라톤대회 또한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는 물론 관광객 중심의 참여형 행사로 축제 흥행을 힘을 더했다.

이번 축제에서는 행사장 모든 부스에서 대화용기를 사용해 호평을 받았다. 먹거리 부스인 영산강 카페테리아를 비롯한 전체 부스에선 축제 기간 일회용품 사용을 일일 금지했다. 대신 재활용 가능한 '다화용기'를 사용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제 가치를 높였다.

자원순환부스에서 관광객들이 종이팩·투명페트병·젤라틴아이스팩·패션전지 등을 가져오면 수량에 맞춰 중량제봉투·텀블러·우산 등으로 교환해주며 자원순환 실천을 독려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 축제 역사를 새롭게 쓴 영산강 축제장을 5일간 방문해주신 시민과 관광객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며 "내년 이맘때 더 크고 새롭게 달라질 영산강정원에서 펼쳐질 2025 나주영산강축제를 일차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문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도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